

學校保健의 課題와 展望

東 鄉 正 美*

序 論

健康教育의 立場에서 學校保健의 課題와 展望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于先 健康教育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言及한다. 健康教育은 健康이 重要하며, 그 重要的 健康을 維持하며 增進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가를 가르치는 學問體系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健康이란 무엇인가를 定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世界保健機構・WHO의 健康의 정의에 依하면, 健康이란 身體의으로도, 精神의으로도, 社會의으로도 良好한 狀態라고 말할 수 있다. 이 良好한 狀態, 英語의 表現으로는 well-being에 대해서, WHO는 아무것도 定義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健康도 嚴密하게는 定義할 수 없다.

또 이 重要的 健康의 一部를 出生하면서부터 缺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人生의 中間에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向해서, 健康을 重하게 함시라는 것은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健康 代身에, 더 基本的인 것인 生命을 重히 하는 教育을 健康教育이라고 하면 어떠할까 이것은 누구에 있어서도 異存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余命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 例를 들면 癌이 末期인 患者로서, 醫師는 앞으로 3個月의 生命이라고 豫想하고 있는 사람에게 生命을 貴重히 함시다라고 말해 보더라도, 이것도 또 意味가 없

는 일 일 것이다.

그래서 生命을 重하게 한다는 것은, 살고 있는 것, 繼續해서 사는 것, 生存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解釋한다. 그러면 앞으로 3個月 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남겨진 3個月을 重히 여겨서 살도록 돕는 것이 健康教育의 實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무 것도 健康教育의 專門家가 實行하지 않더라도, 醫師를 비롯하는 그 分野의 專門家에게 맡기면 된다.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고 理性을 잃고서 3個月 살기 보다는, 마음을 便宜하게 가지며, 身邊의 整理를 한다든지, 親한 사람과 헤어짐을 告한다든지 하여서 3個月을 지나는 편이 훨씬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죽음이 臨迫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自己의 人生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와 같이 健康을 生命과 바꾸어 읽으면 健康教育이 무엇인가를 잘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健康教育에는 2가지의 分野가 있다. 하나는 누구든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또 序頭에서 말한 바와 같이, 健康을 維持하기 위해서, 生命을 維持하기 위해서 좋은 生活方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무엇을 하여서는 안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健康教育에 限定하지 않고, 教育은 本來 實踐하여야 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應用이 目的이다. 卽, 이것은 應用教育學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應用教育學이 더욱 發展하기 위한 土臺로도 되며, 또는 應用教

* 日本 東京大學 教育學部

育의 專門家를 養成함에 있어서, 應用教育을 充分히 理解하여 몸에 지니는 데에도 必要한 基礎的인 教育學이 必要하게 되는 것은 容易하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解剖學이나 生理學 등의 基礎醫學이, 內科學이나 外科學 등의 臨床醫學, 卽, 應用醫學을 支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 것까지도 없이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을 간추려 보면, 健康教育學에는 基礎健康教育學과 應用健康教育學이 있으며, 兩편이 갖추어져서 비로소 健康教育學은 잘 되어간다. 그리고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健康을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서 健康의 基礎가 되는 生命을 健康과 바꾸어 넣어서, 健康教育을 生命教育으로 바꾸어 읽고 싶다.

누구의 生命을 重히 하는가

于先은 自己의 生命을 重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낳아서부터, 또는 人生의 中間에서 健康의 一部를 잃는 사람이라도, 머지 않아 臨終을 맞이한다고 豫想되는 사람이라도, 人間으로서 貴重한 것에는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도, 健康한 사람이라도 自己의 生命을 重히 하는 것 같이 教育하는 것은 生命教育의 第一步이다.

環境이 나쁘고, 細菌 등의 病原微生物에 依해서 많은 生命을 잃었던 時代에는 自己의 生命을 지키기 위하여 各個人이 注意하며, 또는 努力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先人들의 努力의 結果로, 感染病에 依한 死亡은 놀랄만큼 減少하였다. 嬰幼兒, 小兒, 青年의 死亡이 줄었기 때문에 平均壽命이 延長하여, 새로이 記錄이 고쳐 쓰여져가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어려움이 지나서 또 한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번은 癌을 비롯한 成人病이 死亡率의 上位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 事實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이라고도 解釋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平均壽命이 延長했다는 것과, 成人病이 늘어났다는 것은 表裏一體를 이루는 것이며, 幼少時의 死亡例가 적고, 많은 사람이 成人病에 걸리기까지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狀態는 理想에 좀 멀다고 하더라도 전을 때에 일어난 死亡이 지금은 老人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理解한다면, 卽, 낳아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期間이 延長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一步나 二步의 前進입에 틀림 없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自己가 自己의 生命을 끊는다는 슬픈 事件은 健康教育의 敗北이다.

다음에는 自己의 肉親을 비롯하는 自己 以外의 사람의 生命도 重要하다. 人間은 결코 혼자서 살 수는 없다. 自己가 살기 위해서도, 남이 보지도 알지도 않는 사람의 生命도 重要하다. 더욱, 人間 以外의 動物이나, 植物 등의 生物의 生命도 重要하다. 于先은 人間의 食物이 되어주는 것은 生物이 만들어준 有機的이며, 生物學에서의 分類에서는 사람은 從屬營養이며 결코 獨立營養이 아니다. 原始的인 生活을 하고 있으면, 野山에 食糧이 되는 動物이나 植物이 豊富할 것을 祈願했을 것이다. 現在에는 스스로 食物을 採取한다든지 사냥감을 잡는다든지 하는 사람은 數的으로는 많지는 않으나 農業이나 漁業은 바다의 飲食, 山의 飲食을 주는 重要한 產業이며, 人間은 다른 生物의 덕택으로 살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욱, 人間을 包含한 生物이 生存하고 있는 環境이 만약 汚染되어, 破壞된다든지 한다면, 人間도 다른 動植物과 함께 絶滅할 危險에 暴露될 것이다. 그래서 環境教育도 健康教育의 重要한 기둥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더욱 環境을 宇宙에까지 擴大하여, 오존층의 破壞, 地球의 溫暖化 등을 막기 위해서는 宇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生命을 重히 하는 道德教育, 倫理教育, 宗教教育 더욱이는 生命을 大量으로 빼앗는 것은 戰爭이기 때문에, 平和教育도 健康教育의 一部이다.

個人的 生存과 種의 生存

生物學的으로 말하면 人間의 한사람 한사람과 壽命은 有限이며, 낳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편, 사람이라고 하는 生物의 種으로서, 生殖을 하며, 다음의 世代를 남긴다. 有限한 것이 항상 뒤바뀌어서 個人的 壽命으로는 도저히 못 미치는 種으로서의 긴 壽命을 사람은 維持해오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라는 生物의 種으로서의 生命, 또는 生存에 대해서도 健康教育은 點擊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은 環境에 잘 適應할 수 있었으므로 生存을 繼續하여, 더욱 短期間에 人口가

增大하여 왔다. 이러한 狀況은 地球上에 生命이 나타났을 때를 1月 1日으로 하고, 現在까지를 1年間으로 한다면, 1千萬년이 하루에 相當한다. 호모 사피엔스 또는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現代의 人類의 骨骼과 손허 다르지 않은 人骨이 프랑스에서 發見되어, 그것은 約 3萬 5千年 前의 것이라고 推定되었으므로 現代人の 出現을 3萬 5千年 前으로 한다면, 이것은 12月 31日 午後 11時 59分 30秒 무렵의 事件이다. 1萬年 前에는 이미 人口는 約 1千萬名으로 되어, 生命의 歷史로부터 본다면 極히 最近의, 極히 짧은 期間에 人口가 急増한 것으로 된다.

이것보다 조금 前에 숲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先祖들은 草原으로 내려와서 直立步行을 한다는 大進化를 이루었다. 步行을 하기 위해서는 앞발을 쓰지 않으므로, 손이 解放되어, 손으로 道具를 만들고, 그것을 쓰게 되었다. 同時에 大腦가 차차로 發達하여, 現在의 科學의 發展에 連結된다. 그리고 環境에 適應하여 더욱 環境을 人間에게 形便이 좋도록 바꾸어 왔다. 발을 만드는 것도, 動物을 飼育하는 牧場을 만드는 것도 自然의 最初는 極히 一部分, 時代가 經過함에 따라 넓은 面積을 破壞한 것이 된다. 또, 簡單한 住居가 차차로 커져, 또한 多數로 되어서 人口가 密集하는 都市를 形成하였다. 이것은 바람직한 方向으로 人類가 發展해온 것이며, 그 證據에 人口는 增加하고, 壽命은 延長되어, 産業은 發展하고, 豐饒로워졌다.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種으로서 보았을 경우이어서, 한사람 한사람의 個人이 幸福하게 된 것일까

原始時代로부터 現代의 生活으로

또다시 個人으로 되돌아와 보자. 매우 嚴格한 環境下에서, 食糧을 손에 넣어, 좋은 異性을 偶然히 만나서 適當히 子息도 두면 幸福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래 산다는 것은 容易하지는 않았다. 生存하기 위해서 本來 人間에게도 다른 動物에게도 갖추어진 機能이 있다. 그것은 本能이다. 食慾이라는 本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금방 굶어 죽을 것이며, 性慾이 없으면 子孫은 남지 않고, 絶滅하고 있을 것이다. 自己의 生命을 지키며, 種을 斷絶하지 않도록 하는 作用을

하는 것이 本能이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때는 本能을 抑制하며, 어떤 때는 本能을 發揮함으로써 人間社會의 질서를 維持하고 있다. 이 本能의 操作은 오랜 時間을 들여서 教育하여서 비로서 體得하는 것이다. 本能만에 따라서 사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論語의 爲政第二에는

子曰吾一有五而志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從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라고 쓰여 있어서 有名하지만, 孔子와 같은 聖人이라도 七十歲가 되어서 겨우 마음이 바라는대로 따라서 行動하여도 決코 矩(行하여야 할 道)를 헛디디지 않게 되었다.

現在의 學校健康의 問題點

사람은 오랜 歲月을 거쳐서 現在에 이른 호모 사피엔스이라는 것을 念頭에 두고서 兒童이나 生徒의 健康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日本의 現狀을 中心으로 한다. 國民學校의 生徒는 兒童, 中學生과 高校生은 生徒라고 부르기로 되어 있으나, 한데 모아서 生徒라고 부르기로 한다.

日本의 生徒에서 가장 높은 罹患率을 나타내는 것은 齲齒이다. 齲齒(蟲齒)를 죽이기 위해서 이 닦기運動을 學校에서 펼쳐보여 왔으나, 齲齒가 없어졌다는 報告는 아직 없다. 東京大學 醫學部의 井上에 依하면, 原始時代에 불을 使用한 調理法이 없고 단단한 것을, 또한 多量으로 먹지 않으면 充分한 營養이 되지 않는 生活을 보내고 있었던 先祖들의 齒牙는 磨耗하고는 있어도 모든 齒牙가 가지런해져 있어서 또한 齲齒는 없었다고 말한다. 때가 지나감에 따라서, 齲齒나 齒周病患이 늘어나가고 있으므로, 어떻게 纖維가 많은 食物을 잘 씹어서 먹는다면, 食物의 纖維에 依한 自淨作用으로, 齲齒도 齒周病患도 豫防할 수 있다. 사람이 進化의 過程에서 行하여온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내어서, 先祖들을 보고 배우는 것으로 이 問題는 解決된다. 더욱 이 食事의 方法은 肥滿의 豫防으로도 治療로도 된다고 하는 一石二鳥의 效果가 있다. 現在에도 野生의 動物과 動物園에서 飼育되고 있는 動物을 比較하면, 動物園의 動物은 野生의 動物이 가지고 있지 않은 疾病

을 가지고 있다든지 異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行動을 行한다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現在の 整備된 衛生的인 環境이나 醫療 等은 그대로 하여두지 않으면 感染症의 流行이나 嬰兒, 幼兒, 青年의 死亡率의 上昇 等이 일어나므로, 基本的으로는 이 點은 바꾸지 않고 先祖들을 보고 배우는 것으로서 豫防할 수 있는 問題가 鱗齒 以外에도 많이 있음이 틀림 없다.

學校教育和 生徒의 健康

學校保健의 最低의 目標은 在學中에 生徒가 死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目標은 相當히 達成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感染症 等이 줄어들어서 死亡하는 生徒도 줄어들면, 오죽이나 理想的인 教育을 할 수 있는가하고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問題는 身體面으로부터 精神의 畵面으로 옮겨오고 있다. 登校拒否, 못살게 괴롭히기 等이 그 主要한 것이다.

登校拒否

어린이가 자랄 때에 好奇心이 旺盛하게 되어 兩親에게 저것 무엇, 이것 무엇, 이게 뭐 等等 여러가지 차례차례로 質問을 퍼붓는 時期가 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進化의 過程에서 大腦를 비롯하는 中樞神經系가 發達하여 많은 知識을 蓄積하며, 因果關係를 찾는 다든지 하여 왔다. 凶作, 天變地異, 疾病, 다침, 死亡 等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은 무엇인가 나쁜 原因이 있어서 이들의 不幸이 惹起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原因을 찾아서 除去하든가 또는 避해서 지나가도록 했음에 틀림 없다. 사람은 本來 好奇心이 強하고 꼬치꼬치 캐어묻기를 좋아하는 動物이다. 好奇心이 強한 어린이가 學校에 들어간다는 것은, 學校에서 여러가지의 것을 배워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學校는 매우 즐거운 곳이며, 每日 學校에 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그러나 學校는 꼬치꼬치 캐어묻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期待에 應하고 있는 것일까. 그와 같은 面도 多少는 있다고 하더라도 大部分은 아니오이다. 어제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오늘은 할 수 있게 되며, 오늘 몰랐던 것을 내일 알 수 있게 되며, 나날이 知識이 늘어나, 理解의 範圍가 퍼지며, 不可能이 可能하게 되

어서 將來에 希望을 갖게 되어, 人生에 自信이 붙게 된다고 期待된다.

이 期待가 어긋나게 되면 어린이는 學校에 失望하여, 通學할 意慾이 喪失되는 것은 當然하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하나의 答을 내 고자 한다.

學校를 싫어하는 것은 學校의 先生이 만드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日本의 學校授業에서는 先生은 黑板을 등으로 하여서 서며, 몇十名인가의 生徒에게 전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만약 어떤 生徒가 疾病으로 1週日이라든가 1個月이라든가 쉬고 다시 學校에 나왔을 때에는 授業은 앞으로 나가 있어서 同級生에게 따라가는 것은 容易하지 않다. 같은 것을 배우면, 잘 하는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알고 있는 것이므로 시시하고, 反對로 잘 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理解할 수 없는 동안에 앞으로 나아가 버린다. 數學을 할 수 없는 어린이는 運動神經이 鈍하다고 말하며, 레테르가 붙어버려서 그대로 放置해두면, 入學時에 希望에 가슴을 부풀리고 있었던 어린이라도 學校가 싫어질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의 先生이 擔當하는 生徒의 數가 적고, 生徒 한사람 한사람의 能力에 따라서 授業을 進行하여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授業에 따라가지 못하는 生徒는 막을 수 있다. 授業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막는 일도 하지 않고 授業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에 맡겨두고 있다고 한다면, 授業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授業에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한 學級중에 앞으로 나아간 어린이도 있는가하면, 늦은 어린이도 있다. 疾病 等으로 쉬고 있어서 늦은 어린이에게는, 그 어린이가 疾病으로 쉬기 전에 공부하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공부를 繼續하면 되고, 막해 보면 1對 1의 個人授業은 아니더라도, 1對 1의 그 어린이에게는 맞춘, 흔히 말하는 오더 메이드(Order made)의 教育이 된다. 그리고 1年 經過한 곳에서 學力의 差가 너무 나버리면, 2年 위의 學年에 올라가는 越班을 한다든지 그대로 留級하는 落第를 시켜, 調整하면 된다. 2年 아래의 學年으로부터 올라온 어린이에게는, 1年 아래로부터 올라온 어린이보다

조금 레벨이 낮은 그 어린이가 二年 아래의 學級에서 공부하여온 곳에서의 繼續 공부시키면 되고, 落第한 어린이는 아래로부터 올라온 어린이 보다는 좀 나아간 곳. 이미 공부를 끝낸 곳에서 繼續 공부시키면 된다. 이에 관해서, 큰 問題가 될 있다. 하나는 教育豫算이며, 先生 1名이 擔當하는 生徒의 數를 줄이는데에는 先生의 數나 教室의 數를 늘이지 않으면 안되고, 어느 것이나 費用이 많아지는 問題이다. 다음에 더욱 困難한 問題는 生徒 한사람 한사람이 갖은 能力은 같지는 않다는 當然한 單純한 事實을 兩親도 先生도 社會全體도 認定하는 것이다. 意圖적으로 生徒를 差別해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理由로부터 잘 하는 어린이도 잘 못하는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다룬다는 過誤를 犯하고 있다. 그 結果, 數學을 전혀 理解할 수 없는 中學生은 數學의 時間에 雜談을 한다든지, 지루하여서 教室 밖으로 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고, 다만 꿈쩍 않고 時間이 지나는 것을 침아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窓살 없는 監獄이다. NHK(日本放送協會)의 教育텔레비로, 數學의 授業에 대해서 取材한 結果를 放送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依하면 國民學校 5學年에서 算數(國民學校에서는 算數라고 말하며, 中學校 以上에서는 數學이라고 말한다)를 理解할 수 없게 된 어린이가 學院에 가지 못해 가보았던 바, 學院의 先生은 가르치는 方法이 좋고, 學校에서는 理解하지 못했던 算數가 좋아지며 理科系의 大學을 卒業해서 高校의 數學의 先生이 된 例라든가, 秋田縣의 어느 中學校에서, 校長先生의 英斷으로 같은 學年의 數學의 授業을 同一時間에 하였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클래스의 數만큼 數學의 先生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成績順으로 클래스를 編成하여, 數學의 授業 때에는 自己가 割當된 教室로 가서 授業을 받는다. 텔레비에서는 가장 낮은 클래스에 割當된 男子生徒에게 인터뷰하고 있었지만, 그 生徒는 最初에는 自己가 數學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同級生 뿐만 아니라, 아마 學校에 알려져 버리므로 무척 싫었지만, 數學을 공부하기 始作해보면, 지금까지와 달라서 生徒는 理解할 수 있게 가르쳐주므로, 조금씩 즐거워지게 되었다는 意味의 것을 答하고 있었다. 이 2가

지의 例로부터도, 以下の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一. 學校의 教育은 뻔아할 生徒의 能力을 充分히는 잘 辨게하고 있지 않다. 二. 數學을 잘 하는 사람이 數學의 先生이 되어 있기 때문에, 數學을 잘 못하는 어린이의 立場을 理解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學校教育制度에 適切하지 않은 點이 있으며, 教員養成過程에서의 教育에도 不足하고 있는 點이 있다. 이것을 改善하려면 오랜 時間이나 많은 努力, 多額의 豫算이 必要하겠지만 來日을 등지고 일어서는 生徒의 教育에는 最善의 努力을 기울이어야 할 것이다. 以上은 잘 못하는 어린이에게 焦點을 맞추어서 말해왔지만 잘 하는 어린이에게 있어서도, 學校는 반드시 즐거운 곳이라고는 限定하지 않으며, 한사람 한사람에게 눈길이 미치는 授業을 한다면 모두 잘 되어 간다는 保證도 반드시 없지도 않으나, 現狀보다는 훨씬 前進할 것이다. 要是 한사람 한사람의 生徒가 個人으로서 尊重된다면 問題는 解決된다. 꼬치꼬치 캐어물기를 좋아하는, 好奇心이 강한 人間의 本姓을 비뚤어지게 하는 教育이어서는 안된다.

못살게 괴롭히기

못살게 괴롭히기는 當然히 自己보다 弱한 者를 못살게 괴롭히는 것이지만, 못살게 괴롭혀지는 쪽이 못살게 괴롭혀지는대로 하고 있는 例도 많다. 나의 몸을 지키며, 生命을 지키는 것은 自己이며, 이 大原則을 잊고 있다고 말하기 보다는 그와 같이 가르침을 받아, 길러져서는 오지 않은 어린이가 많은 것일까. 疾病이나 다침을 醫師는 治療해주시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本人이 낮은 것을 거들어주실 뿐이며, 낮은 것은 本人이다 못살게 괴롭혀졌을 때에 兩親이라든가 先生이 또는 거들어줄지도 모르지만 自己의 몸을 지키는 것은 自己이며 前述한 바와 같이 自己의 生命을 重하게 한다는 것은, 自己가 自己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다.

왜 自己가 自己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 家庭의 禮儀凡節이 나쁘다든가, 學校의 責任이라든가 여러가지의 說이 있지만, 이것은 本來는 自己가 스스로 배워서 갖는 것이 아닌가. 어린이들이 廣場에 모여서 논다든지, 때로는 싸움

을 한다든지 하여서 어린이는 成長하는 것인데, 놀이터가 없어진다는가, 공부에 쫓겨서 놀 時間이 없어진다는가, 兄弟끼리 싸움을 하는 兄弟가 없다는가 옛날의 어린이들이 동네에서도 農村에서도 해온 것을 지금의 어린이들은 할 場所, 機會를 빼앗겨버리고 있다. 暴刀에 의한 못살게 괴롭힘도 말에 의한 못살게 괴롭힘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는 社會에도 지켜야 할 룰(rule)이 있으며 룰을 몸에 지니면서 자란다. 그러기 위해서도 같은 年褻의 어린이들이 무리지어서 노는 場所는 必要하며, 그러한 過程을 거쳐야만 充分한 資質을 갖춘 어른이 된다.

結 論

이렇게 하여서 생각해 보면, 學校保健 專門家, 保健의 教師, 養護教師, 學校醫 等の 校外의 專門家は 學校保健의 여러가지의 問題解決에 踰어질 수 없을 만큼의 責任이 지워져 있다. 또한 內容에 따라서는 專門을 묻지 않고 모든 教師, 더욱이 모든 教育關係者, 나아가서는 社會의 모든 사람의 協力이 없으면 풀리지 않는 難問이다. 그러나 恒常 그 中心이 되는 것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다. 나의 변변치 못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多幸이다.